

# 북한개발소식

# 01

2021 January | 통권 183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기독교 박해



# 북한의 기독교 박해

## - 전개와 현 실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1 January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기독교 박해



권두칼럼	0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칼럼_1	11	임창호_ 이슬람국가보다 더 잔인한, 북한의 기독교박해 실태
칼럼_2	20	안현민_ 북한 종교자유 및 박해 실태
탈북민 수기	29	북한의 기독교 박해 증언_ 아버지가 잡혀가셨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뉴스	33	與, '대북전단 금지법' 단독 처리...野 반발, 美서 파장 외
서평	37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
북한 기도 제목	40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



북한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서부터 일관되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수령에 대한 유사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간 활동이 없었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이 70년대서부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세워지는 등 북한 내에 기독교 관련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종교 박해 관련 조항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도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조그련 산하 교회와 가정 모임 등을 바탕으로 약 1만 5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일견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 줄어들었거나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단지 북한에 기독교인이 매우 적은 이유는 주민들이 종교 활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폭압적이고 악마적인 행태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 내에 기독교는 과거 핍박으로 인해 멸종하였다는 식의 이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이 70년대서부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세워지는 등 북한 내에 기독교 관련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양 봉수교회. 조그련 소속의 봉수교회는 1988년 완공된 북한 최초 공인 예배당을 가진 교회이다. 2007년에 재건축되었다.〉

그렇지만 정말로 북한이 기독교 박해를 중단했을까? 북한은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현 시점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북한의 박해는 안타깝게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선교와 관련이 없는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계속 확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박해받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잘못된 지식과 오해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새해를 맞아 기독교를 중심으로 북한의 종교 박해 경향을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 변화

먼저 최근 박해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될 해방 이후 북한 기독교 정책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북한은 일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해왔지만, 그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박해 양상의 변화가 관찰된다.<sup>1</sup>

50년대는 한국 전쟁시기로 이 시기 김일성은 기존 종교회유정책에서 종교말살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김일성은 외종 6촌 삼촌이 되는 강양욱을 앞세워서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을 만들어 교회지도자들을 포섭, 회유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 그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종파분자 투쟁을 벌이고, 전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서 주민 성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

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 추방, 집단수용소 행 등의 박해를 받았으며, 신앙을 숨긴 신자들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주민 성분 조사는 수차례 더 시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희생이 누적되었다.

60년대부터는 주체사상과 김일성유일사상체계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자립·자주자위 노선, 외교에서의 자주로 발전되다가 1974년 김정일에 의해서 소위 김일성주의를 의미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으로 발전하였는데, 10대 원칙을 살펴보면 김일성주의가 유사종교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주체사상은 김정일에 의해서 혁명적 수령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김일성주의 확립과 발맞추어 종교말살정책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1970년도 초부터 80년대까지는 또 다른 움직임이 관찰된다. 72년 이후 북한은 공인종교조직인 조그련의 활동을 재개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로 일부 종교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60년대 말 공포분위기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적 정책, 유일사상확립 시기에 과거 김일성과 관계가 있었던 기독교인 가족의 복권, 김일성 탄생 60주년 기념한 전국적인 대사면 등을 계기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사면되었고<sup>2</sup>, 또한 그 당시 숙련된 고급 인력에 대한 필요와 결부되어 사면된 사람들이 다시 등용되는 일도 일어났다.<sup>3</sup> 이렇게 사면된 이들 중 상당수는 조그련 소속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그련의 대두가 기독교 신앙의 전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비밀스럽게 신앙적인 활동을 한 것이 노출되면 가차 없이 오지 추방 및 비밀처형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sup>4</sup>

90년대 일어난 김일성의 사망과 대기근은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식

10대 원칙을 살펴보면 김일성주의가 유사종교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주체사상은 김정일에 의해서 혁명적 수령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김일성주의 확립과 발맞추어 종교말살정책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1 김성태 (2017). “북한교회의 고난의 발자취와 통일된 한국교회의 사명”, 한국선교 KMQ 16(3), pp 34-48.

2 김병로 외 (2020). 그루터기-북한종교인 가족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찾아서. 서울:박영사. pp. 22-26.

3 김성태 (2017), 앞의 책 p. 40.

4 김성태 (2017), 앞의 책 p. 41.



량을 구하기 위해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넌고, 북한 당국도 절박한 상황에서 중국에 양식을 구하게 하기 위해 한 동안 북한 주민들 중에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주민들을 중국으로 쉽게 보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중국의 조선족 교회는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북한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북한 당국은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기독교 전파를 경계하고 이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고, 한 편으로는 조그런 등을 활용하여 외부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각종 경제 지원을 유치하기도 하였다.<sup>5</sup>

### 북한의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북한의 종교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 이후 북한의 헌법 개정 및 조그런 등의 공인종교기관의 활동 등 북한의 제도와 기구의 변화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적인 종교에 대한 태도는 개선을 보여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2년 조그런 활동이 재개되었는데 같은 해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이 추가됨으로서 반종교선전에 무제가 실리기는 했지만 종교의 자유 관련 조항이 최초로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92년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제 68조)로 개정되었고, 1998년에는 이 조항에서 ‘누구든지’가 삭제되었다. 이후 2000년대 말까지 조그런을 중심으로 남북 기독교계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단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대외적으로 종교 관련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92년 출간된 김일성의 회

5 남덕우 (2014). “북한 종교 정책에 따른 신앙생활 실천방안”, 신학과 실천 (42), p.758.

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김일성의 어린 시절 및 항일 운동 당시 연관되었던 기독교 및 기독교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 좋은 점도 있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sup>6</sup>

김홍수, 류대영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북한은 비록 체제 우위가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거나 적어도 포용적이며, 일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종교 자체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는 “반동적”이라는 이유로 인한 정치적 핍박으로 이해한다.<sup>7</sup> 최재영은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단지 전쟁으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이며, 현재 조그런 산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용 단체가 아닌 북한의 주체문화가 토착화 된 북한식 교회라고 주장한다.<sup>8</sup>

조그런이 비록 국가 단체이기는 하나 그 구성원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동원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로는 조그런 산하 기독교인도 기독교인 선조의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은 만큼 그들에게서 신앙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내부적인 감시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것으로 보았다.<sup>9</sup>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들은 당성이 투철한 ‘핵심계층’ 중에서 뽑혀왔으며 대외적 선전을 위해 일요일에 교회에 동원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자



〈평양 칠골교회에서 드려진 성탄절 기념 예배 모습 (사진:연합뉴스)〉

6 김일성. (1992). **세기와 더불어**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102-104.

7 김홍수, 류대영. (2002). “북한 주요 종교의 현황과 남북 종교교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 기독교와 역사(16), 123-180.

8 “종교의 자유 보장된 北 500여 가정교회 존재... ‘복음통일’ 외치기 전 북한 실상부터 공부해야”, 뉴스엔조이, 2020.03.12., <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73>(최종조회일: 2020.12.18.)

9 김병로 외 (2020). 앞의 책 pp. 29-36.

북한의 종교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 이후 북한의 헌법 개정 및 조그런 등의 공인종교기관의 활동 등 북한의 제도와 기구의 변화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등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당에서는 이런 조짐을 간파하고 봉수교회 주변 아파트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주변을 감시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sup>10</sup> 이는 조그런 내 성도들 중 단순 동원된 인원이 아닌 진짜 신앙을 가지거나 선조의 신앙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조그런 산하에서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북한의 종교정책이 일정부분 변했을 수도 있고, 공인 신자의 존재 및 조그런을 통한 외부와의 종교 관련 교류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조그런과 공인 신자조차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보통주민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욱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한다. 여러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오히려 극심한 박해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기독교 단체나 몇몇 소수의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이들의 주장이 아닌 광범위한 증언과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사실상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의 신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up>11</sup>

이 백서의 2020년 판에는 기존 박해 사례 외에도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종교박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는데,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증언이 있었고, 같은 해 4월에 친척이 성경책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다가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완전통제구역)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탈북자들 중 중국 등 제 3국에서 기독교를 접촉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출간하는 북한종교자유백서 역시 그간 누적된 탈북자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에 보편적인 종교가 사라지고 주체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확인된 1,411여건의 종교박해 사건들을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정치범수용소나 교회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침해 유형은 사망, 실종, 강제 이주 등으로서 종교박해사건과 연루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sup>12</sup>

영국 기반의 북한 인권 NGO 한국미래이니셔티브(Korea Future Initiative)는 20년 10월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 침해 생존자, 증인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117 건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총 273 명의 종교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확인하였다. 이중 215명은 기독교인이었으며, 피해자 중 76명은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연구 단체들의 조사 외에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선교 현장에서 매해 신앙을 이유로 큰 환란을 겪는 북한 성도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확

12 안현민 외 (2020). 2020 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 pp 212-215.

13 한국미래이니셔티브(2020).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 pp 8-9. <https://www.koreafuture.org/s/Persecuting\_Faith\_Kor.pdf> (최종조회일: 2020.12.22.)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기독교 단체나 몇몇 소수의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이들의 주장이 아닌 광범위한 증언과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10 태구민,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증진” 평화통일연구 (1), pp. 1-14.

11 이규창 외 (2020).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통일연구원. pp. 154-166.

인되고 있다. 여전히 비밀 예배처소에 대한 추적 및 습격이 이루어지고, 성경 책 소지 및 예배 등 종교 활동이 적발될 경우 실종되거나 심하면 처형되기 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여전히 요원한 신앙의 자유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에 대한 정책 및 태도 변화의 진정성도 의문이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내세우는 종교시설에 대해 대외선전용으로 활용되어왔다고 기술한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외국인 기독교인 방문자들이 부활절 등 절기를 맞아 사전협의 없이 이유로 예배당을 찾았을 때 교회 문이 닫혀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이 있는 등 연출된 모습이 보인다는 분석이다.<sup>14</sup>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이 인정하는 기독교와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가 인정하는 형태 외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종교 정책이 세계인권선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련의 기독교 박해 사례들은 북한이 인정하는 기독교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는다. 일례로 북한 당국이 허가 없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일이 처형이나 종신형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면 당국이 성경 소

지나 배부를 매우 위중한 반동,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요 기초가 되는 성경을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읽을 수 없게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보통의 기독교인이 북한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나 조그런의 활동에 대해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박해 실태 인식과 함께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북한의 종교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전면적인 불관용에서 일부 허용으로 변화해왔다. 북한은 조그런 등의 단체를 통해 일부 공식 교회와 신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록 국가의 통제 아래 있지만 그 성도들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현 시점에도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배부했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투옥과 고문, 심지어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반쪽자리 기독교와 신앙의 자유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면죄부를 부고 인권을 쇄시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다. 북한의 종교 박해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비핵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듯이 인권 개선, 신앙의 자유를 위한 대화도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외교적 대화 가운데 비핵화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 등의 인권 관련 주제가 다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가능한대로 민간 차원에서의 종교적 교류도 시도해봐야 할 것

일련의 기독교 박해 사례들은 북한이 인정하는 기독교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는다. 일례로 북한 당국이 허가 없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일이 처형이나 종신형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면 당국이 성경 소지나 배부를 매우 위중한 반동,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이 인정하는 기독교와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4 이규창 외. 앞의 책, pp. 162-163.



# 이슬람국가보다 더 잔인한, 북한의 기독교박해 실태

임창호 (고신대학교 부총장)

## 김일성 종교국가, 북한


미국의 종교전문 사이트인 애드히런츠닷컴(adherents.com)은 ‘신도 수로 본 세계 주요종교’에서 2007년에 처음 북한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하여 10위로 발표한 이래, 2016년도에는 8위까지 서열을 올렸다. ‘주체(Juche)’라는 이름하에 1,900만의 신도를 거느린 거대한 세계종교로 소개한 것이다. 종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교주, 교리, 교인의 3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애드히런츠닷컴은 북한의 주체사상교는 교주-김일성, 김정일, 교리-김일성 주체사상, 교인-1,900만 명 북한 전 주민으로 발표하였고, 종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도했다.

주체사상은 북한정부가 인정하는 종교화된 사상이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구소련의 스탈린 또는 중국의 모택동 사상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종교적이다. 뿐만 아니라, 추종자인 북한주민들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단체가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한 이유으로써,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신으로 섬기는 심령파(Spiritism)의 종교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유대교(1천400만 명), 바하이교(700만 명), 자이나교

이다. 또한 국제적인 인권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과 관계하는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국제 사회에서의 평판과 꼭 필요한 정치적 협의를 위해 북한 정부가 약간이나마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를 완화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비록 북한의 체제와 사상의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로 제대로 된 자유의 증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평화적인 북한의 종교의 자유 개선을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글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현황 전반을 다룬 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고 계속된 관심과 기도에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북한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 같은 순수한 이슈들이 세상에서는 정치적 의도나 외교 문제 속의 한 가지 카드로 인식되기 일쑤이다. 그렇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북한의 성도들과도 한 몸 된 우리 남한의 교회에게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심각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 성경은 주님께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며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 일컬어지는 우리는 환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비록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며 생명을 잃을 각오가운데 사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분들을 위해 2021년을 맞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길 기도한다.

비록 북한의 체제와 사상의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로 제대로 된 자유의 증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평화적인 북한의 종교의 자유 개선을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14(하반절)~17) 

(420만 명), 일본의 신토(400만 명)보다 더 많은 추종신자를 지닌 새로운 세계종교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두 개의 개신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와 1개의 평양교구 천주교회(장충성당), 64개의 불교사찰 등을 만들어 놓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 우상화 행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하나인, 생활총화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총화는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산재한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실(이하 사상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사상연구실은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데<sup>2</sup>. 이곳에서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한다. 사상연구실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의 높은 덕성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 우상화를 강요하는 예배당과 같은 곳이다.

북한 전 지역의 당 및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문화, 과학기관, 인민군부대 및 경비대 등 인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갖추어져 있는 사상연구실은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sup> 김신조 씨는 북한의 구역예배는 ‘당 세포회’이며, 구역장은 세포위원장(책임비서), ‘회개’는 자아비판과 같다고 하면서 학습과 생활총화로 잘 짜여진 북한사회의 체제가 남한의 교회에와 보니,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sup>4</sup>

사상연구실에서는 학습활동 이외에 각종 선서모임과 충성의

1 정대일(2012). *북한 국가종교의 이해*. 서울: 나남사. p.15.

2 김병로(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p.102.

3 김병로(2000), 앞의 책 p.6.

4 김병로(2000), 앞의 책 p.107.

편지 전달모임, 축전전달모임 등의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사상연구실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장소와는 구별되는 엄숙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김일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성소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반드시 치마를 입고 입장해야 하며, 남성들도 단정한 복장을 한



〈평양 만수대에 위치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참배하는 모습〉

다.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sup>5</sup> 시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데, 생활총화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소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모임 때마다 약 40~50분간 김일성의 교시나 말씀을 중심으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철저하게 서로를 감시하게 하며, 무의식중에 김일성우상화를 철저하게 세뇌하는 김일성 예배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생활총화는 국민적 의무사항이다. 생활총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만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구체적인 종교화, 우상화작업으로 발전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4월14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헌을 발표하면서, 서문 10개 조항 62항목 후문으로 구성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을 소개하였는데, 이 원칙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이후,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도 상위법으로써 북한 최고법의 위상을 가질 뿐 아니라<sup>6</sup>, 기독교 10계명과 같은, 김일성우상화 지침서로

5 리영복 외(1985). *교육사업에 대한 당의방침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184

6 송인호(2019).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 43권. 제1호. pp.147-150.

196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총화는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산재한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실(이하 사상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사상연구실은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데. 이곳에서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한다.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sup>7</sup> 실제로 10대원칙 제3조 1항에는 십계명 제1계명(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과 유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김병로, 2000, 218-219에서 재인용)

김일성동지 이외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신념을 강요함으로써,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기독교 십계명의 1계명을 연상케 한다. 뿐만 아니라, 10대원칙은 김일성종교의 실천교리와의 같다.<sup>8</sup>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김일성주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국가처럼 폐쇄적 신정체제이며, 국가가 다른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공인하는 공인종교형 체제를 지닌 국가<sup>9</sup> 이다. 김일성우상화 현상을 주체교 혹은 김일성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김병로는 김일성수령교라고도 불렀다.<sup>10</sup>

###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 북한

북한 헌법 제68조에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종교를 통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는 없다”고 사족을 달아, 합법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신앙을 김일성우상화에 장애요인으로 규정하여 기독교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sup>11</sup> 실제로 기독교신앙을 갖는 것이 북한사회 안에서 불가능하도록 장치해 둔 것이다.

북한에서 살다 내려온 탈북민들 99.6%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북한에서 기독교신앙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끌려 나간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60%이며, 박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 사망된 자가 17%이며,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가 박해를 받은 후 생존율은 2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이 적발될 경우 50%가 정치수용소에, 11.3%는 교회소에, 2.8%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탈북민들은 응답하였다. 또한 기독교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는 간첩죄가 적용되어 국가전복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sup>12</sup>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0년 기독교박해보고서(World Watch List)에 의하면 북한은 19년째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박해가 심한 나라 1위(박해점수 94)를 차지했으며, 아직도 기독교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은 5만~8만 명에 이르며, 비밀리에 기독교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성도들은 30여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sup>13</sup>

기독교 박해국 Top 10 순위를 보면 1위 북한에 이어 아프가니스탄(2위, 이슬람), 소말리아(3위, 이슬람), 리비아(4위, 이슬람),

북한에서 살다 내려온 탈북민들 99.6%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북한에서 기독교신앙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끌려 나간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60%이며, 박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 사망된 자가 17%이며,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가 박해를 받은 후 생존율은 2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7 김병로(2000), 앞의 책 p.47.

8 김병욱·김영희(2010). “북한사회의 ‘수령교’와 타종교권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사회과학연구. 제18집제2호. p101.

9 김진웅(2003). “북한의 종교 실태와 선교전망”. 북한선교. 제2호. pp.31-334.

10 김병로(2000), 앞의 책 p.202.

11 김병로(2000), 앞의 책 pp.185-190.

12 북한인권정보센터(2020). **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p.182.

13 <https://www.opendoors.or.kr>.



〈오픈도어 2020 세계 기독교 박해 지도〉

파키스탄(5위, 이슬람), 에리트레아(6위, 독재), 수단(7위, 이슬람), 예멘(8위, 이슬람), 이란(9위, 이슬람), 인도(10위, 종교 민족주의) 순으로 되어 있다. 혹독한 기독교 박해국들인 7개 이슬람국가(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예멘, 이란)들이 북한의 뒤를 잇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해야만 한다. 환언하면, 북한은 지구상의 어떤 이슬람국가보다도 기독교신앙에 대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는 최악의 국가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선교는 이슬람권 선교보다도 더욱 철저한 선교전략과 준비,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국가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 기독교박해의 구체적 사례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미래이니셔티브는, 2020년 10월 26일,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북한 안에서 신앙을 이유로 처형된 사례만 20건에 달하며, 특히 같은 장소에서 성경 소지 등의 혐의로 기독교인이 처형된 사례도 4건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는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무산장마당에서 1천여 명의 주민 앞에서 사살되는 처참한 공개처형 장면을 근거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sup>14</sup>

2020년 3월20일,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공개한 북한 보위부 내부교육용 자료영상에 의하면, 북한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미국

과 한국이 파송하는 국가전복을 꾀하는 간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미국과 한국이 개입하는 간첩훈련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영상에 의하면, 북한 특정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김일성대학 출신 여성을 잠입시켜 일 년 이상 교인을 찾아내어 접선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허위고백을 한 후, 타 지역에서 일시에 수십 명이 모이는 날을 확인 한 후, 보위부에 보고하여 모든 지하교인들을 일망타진했다는 사례를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해방 전부터 예수를 믿던 장로의 딸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수용소로 잡혀갔거나 주동자들은 처형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조차 북한 안에 지하교회가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면서, 가끔 탈북민들이 북한 안에서 신앙을 접했다고 증언하면, 믿을 수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북한정부가 스스로 북한 안에 지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뿐 아니라,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집단적인 모임까지 갖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sup>15</sup>

다음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기독교 관련사건 내용의 목격 증언들이다.

“아주머니 한 분이 성경책을 집에 놔뒀다가 발각이 돼서 그 집 (피해자의 집)에서 끌려 나가고, 그 집은 군관이 살려고 들어오고, 아주머니는 신의주시 연산동이라고 농장 탈곡장에서 공개 총살하는 거예요. 공장 기업소에서 총살하는데 가도록 해서 구경 갖

<sup>14</sup> RFA, 2020.10.26.

<sup>15</sup> 한국기독신문, 2020, 4.9



〈북한기독교총연합회측은 20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경 황해북도 보위부가 반종교 교육을 위해 제작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북기총 영상 캡처)〉

는데, 왜 총살이냐고? 물으니까 말하는 애기가 성경을 보관했다고 말했어요. 머리, 심장. 다리 있는데 묶고 2005년 9월 달에 총살했어요.”<sup>16</sup>

“성경책은 혼자서 한권을 다 안보고 다 찢어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본단 말입니다. 근

데 한명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2007년 9월 정도에 걸렸 습니다. \*\*은 성경책은 원지 몰랐고 재미있어서 봤다고 말했다가, ‘재미있어서 봤다’는 말이 걸려서 보위부에 끌려가서 소식이 없습니다.”<sup>17</sup>

“\*\*\*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이 여자를 데리고 갈 때에 여섯 명을 다 잡아 갔어요. 결국 지하교회죠. 나중에 알았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이 조에 여자 하나를 집어 넣었어요. 그 조 책임자는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주관한 것 같은데, 딸처럼 여기던 이 여자가 보위부에서 임무를 받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장(고발)을 해서 다 잡혀 들어 간거죠. 그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모였다고 들었고, 찬송가도 불렀다고 해요. 교회예배를 하면서 강냉이도 한 달에 30키로씩 인가 받았다고 들었는데 모르죠. \*\*\* 엄마도 같이 가담했었는데 이 엄마도 정치범수용소로 갔어요.”<sup>18</sup>

“2015년 12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가택수색 받던 중 성경책이 발견되어서 보위성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음. 이후 소식을 듣지 못하여 관리소로 간 것으로 추정함. 2018년 황해북도 길성포

항에서 기독교 전파 혐의로 2명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함.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동시에 진행했고 정치범 재판의 주최는 국가보위성이었음.”<sup>19</sup>

###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선교국이 한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서 이슬람국가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 북한이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파트너이기도 하다.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몇 발치 안 되는 휴전선 넘어 북한동쪽 기독교인들은, 북한 안에서 잡혀가 박해받고 수감되고 잔인하게 순교의 죽임을 당해왔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당장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

16 북한인권정보센터(2020). 앞의 책 p.203.

17 북한인권정보센터(2020). 앞의 책 p.207.

18 북한인권정보센터(2020). 앞의 책 p.208.

19 통일연구원(202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p.164.



# 북한 종교자유 및 박해 실태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바탕으로 -

안 현 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68조를 통해 명시하고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종교를 제한하면서도 중앙 종교기관들과 한국이나 외국의 종교단체들과 종교의식 및 종교교류를 통해 대내외 정세 변화에 맞춰 정치적·경제적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북한 종교 정책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종교 활동은 절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과 십자가와 같은 종교물품을 소지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을 접했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종교 관련 행위 자체를 일체 ‘할 수 없는 것,’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종교자유 수준을 측정하고 북한 당국의 종교박해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문헌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조사 대

상자는 전체 14,832명이며, 이들은 자신이 입국한 시점에 각각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기록된 내용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인권 침해 내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석 양식에 따라 분류되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건 78,974건, 인권 침해 관련 인물 48,993명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그 중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411건, 종교 박해 관련 인물은 1,234명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 1. 북한주민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 수준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는 북한 종교자유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북한 지역에서 종교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정보는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이 문항에 응답한 14,052명 중 13,993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시설에서 특수목적을 위한 종교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평양에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에는 당국이 인정하는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고 밝혀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양 이외 지역의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의 존재를 질문하였다. 북한에서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장소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그런 장소는 없다고 답하였다.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평양 이외 지방에서 제한적이지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정예배 장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

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에 합법적인 가정예배처소가 있다고 응답한 1.3%의 경우에도 이들의 증언은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서 응답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를 보았거나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였다는 증언자는 없었다.

북한에서 종교 시설(교회, 성당, 절 등)에 합법적으로 가본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350명 중 108명(0.8%)만이 종교시설 방문 경험을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면 쉽지 않지만, 1997년 이전 북한이탈주민부터 경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종교시설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교시설 방문자 중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종교행위 목적의 시설 방문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575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단 16명에 불과하였지만, 그 후 탈북 한 성경을 본 경험자는 559명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이전에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

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탈북 한 경우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자 비율은 해마다 약 4.0%를 넘고 있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체포될 경우 높은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3,707명 중 417명(3.0%)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467명(1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6,408명(46.7%)이 응답하여,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분석되어 있는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411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48건(5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물품 소지 332건(23.5%), 종교전파 146건(10.3%), 종교인접촉 63건(4.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종교박해는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종교 활동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책과 십자가와 같은 종교물품을 소지한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을 접하였거나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인물을 접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박해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까지 발생 사건은 39건(2.8%)이 보고되었고, 1980년대 발생한 사건은 50건(3.5%)에 불과하였다. 1990

북한에서 종교 시설(교회, 성당, 절 등)에 합법적으로 가본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350명 중 108명(0.8%)만이 종교시설 방문 경험을 갖고 있었다.

년대 337건(23.9%), 2000년대 756건(53.6%), 그리고 2010년대 123건(8.7%)의 종교박해 관련 사건이 보고되어 관련사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하여 최근까지도 박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공개한 ‘2020 세계 기독교 박해보고서(World Watch List)’에서는 북한이 1위를 기록하였는데 북한은 19년 연속 종교박해국 리스트에 포함되었었다.<sup>1</sup>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 및 처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 종교박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장소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박해 발생 장소에 대한 조사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박해는 종교전파, 종교 물품소지, 종교 활동, 종교인 접촉 등이 당국에 적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종교박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정보 제공자가 관련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장소 또는 종교박해 희생자를 목격한 장소를 사건 발생 장소로 하였다.

그 결과 보위부 및 안전부가 472건(33.5%)으로 가장 높고, 정치범수용소 266건(18.9%), 교화소 154건(10.9%), 피해자의 집 135건(9.6%), 단련대 37건(2.6%), 공공장소 32건(2.3%), 집결소 25건(1.8%), 서비스기관 혹은 정부기관 11건(0.8%)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박해는 종교적 사건으로 당국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고 있는 조사시설과 구금시설이 중요한 박해 장소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종교박해 사건의 52.0%가 목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박해 사건은 북한의 사법기관 조사시설과 구금시설에서 종교박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sup>1</sup> 국민일보, “북한, 19년 연속 기독교 박해 순위 1위,” (2020.01.26.)



〈북한 요덕수용소의 인권 유린 참상을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한 장면 (사진:월간조선)〉

북한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된 경우가 826건(58.5%), 이동의 제한 147건(10.4%), 사망 126건(8.9%), 실종 94건(6.7%), 추방 및 강제이송 53건(3.8%), 상해 79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이동의 제한, 사망 및 실종, 상해,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목격자와 증언자의 목격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인 처벌은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3. 북한의 종교박해 사례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최근까지 실시한 북한종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종교 활동 및 종교관련 물품 소지 등의 이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분석되어 있는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411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48건(5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물품 소지 332건(23.5%), 종교전파 146건(10.3%), 종교인접촉 63건(4.5%)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았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종교생활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로 인해 직접 처벌 받거나 다른 사람이 처벌당한 것을 목격한 여러 증언들로 뒷받침된다. 현재 「NKDB 통합 인권 DB」에 등록된 1,411건의 북한 종교박해 사례 중 관계자의 인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요 사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게 11년도 겨울이었어요. 구류장에 잡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중국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분리해서 독 감방에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때 병으로 앓고 있었어요. 위궤양을 심하게 앓았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입에 죽을 떠 먹여주고 그랬어요. 종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국자에 맞아서 죽었어요. 계호원이 때렸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침을 뱉어나 악이 나서 그랬어요. 00시 보위부 구류장이었어요.”<sup>2</sup>

“옆에 있는 북한 여성이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이 소리가 북한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불었거든요. 요만한 독방에 혼자 가뒀는데 보위부 1년을 독방에 갇혀서 가슴이고 몸 반쪽을 못 쓰거든요. 1년이라는 세월을 독감방에서 있다는 게.”<sup>3</sup>

“제가 딱 아는 가까운 사람이 중국하고 기독교 선을 타고 있어서 정치범으로 잡혀갔어요. 기독교 선이라고 해서, 짐 속에서 성경도 나와서 정치범에 들어갔어요. 북한은 정치범 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판이라는 게 없죠. 그저 어느 밤에 와서 차에 실어 가는데, 밤에 노상에서 체포하는 건 아니고 집에 와서 체포해가니

까 가족들은 알거든요. 이거 보위부에서 데려갔나 보안서에서 데려갔나. 그니까 가족들이 보위부에 가서 다 알아보고, 무슨 일인지, 살릴 수 있는가 알아봐요. 그러면 보위부도 그래요. ‘다시 여기 오지 말라. 더 기대도 가지지 말라.’ 2015년 그때였어요.”<sup>4</sup>

“\*\*\*는 중국에 3개월 동안 비자 내서 있다가 선교 같은 것을 한 거 같아요.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책이 조그만 책이 있더라고요. 그 것을 가지고 오자니까 했는데 짐은 검열해서 가슴에 가지고 오다가 신의주 세관에서 잡혔어요. 별의 별 고문 다 받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정치범수용소 갔어요. 이게 작년도에 중국 나가기 전이니까 6월 7월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니다. 한 달 동안 취급받다가 그리고 정치범 갔어요.”<sup>5</sup>

“\*\*은 탈북해서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 단체한테 얼마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믿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을 신고가 들어가서 교화3년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 자식이 현재 중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보호 받는다는 것이 다 알려진 거죠.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걸 말했죠. 현재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sup>6</sup>

#### 4. 결론

북한 종교박해 사건 기록 및 인물 정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은 종교자유 제한으로 인해 수십 명은 공개처형을 당

4 탈북자 김○○, 2015년 11월 면접

5 탈북자 이○○, 2013년 10월 면접

6 탈북자 박○○, 2011년 6월 면접

현재까지 북한에서 종교생활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로 인해 직접 처벌 받거나 다른 사람이 처벌당한 것을 목격한 여러 증언들로 뒷받침된다.

2 탈북자 이○○, 2017년 10월 면접

3 탈북자 박○○, 2010년 5월 면접

## 아버지가 잡혀가셨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증언

북한에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해온 은진은 태어나면서 부터 집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보면서 자랐다. 10대 초반 어느 날, 등교 길을 배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날 이후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성인이 되어 한국에 살고 있는 은진은 때때로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한다.

은진의 부모님은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았던 두 분 가정은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함경북도 끝자락으로 추방되었다.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은밀하게 모여 예배하던 중에 은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은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집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틈에 다른 지역의 신앙인들이 와서 머물며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습

니다.”

은진의 할머니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셨다. 이러한 예배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저는 밖에 나가 망을 봤습니다. 누군가 집에 가까이 오면 달려가서 알렸고, 어른들은 각자 다른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은진의 가족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녀가 어린 시절 배운 신앙의 교훈은 이런 것들이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천당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식사 때 마다 번갈아가며 기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다른 신앙인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했고, 대부분은 정치범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에서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탄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통제 하에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지하교회 등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주민의 종교자유를 증진하고, 종교박해를 예방하고, 박해피해자들이 구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기구와 국제적 NGO 등 다양한 기관 및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종교자유와 종교박해 실태 상시 모니터링, 종교자유와 종교박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종교박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과 예방 대책 개발, 국내 거주 북한생활경험자 종교 활동 지원 강화, 북한 종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국제기구와 국제적 NGO 등 다양한 기관 및 사람들과 함께하여 북한의 종교자유를 증진하여 종교박해를 예방하고 박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종교 박해 실태 개선을 위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면서도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와 구체적 종교 박해 사건들을 증언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용기 및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 종교 박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종교 관련 실태가 개선되기를 소망한다. 

북한 종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국제기구와 국제적 NGO 등 다양한 기관 및 사람들과 함께하여 북한의 종교자유를 증진하여 종교박해를 예방하고 박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안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집 밖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한 저의 대답은 항상 '모릅니다' 였습니다.”

은진의 집에는 세 종류의 성경책이 있었다. 할머니가 보시던 한글과 한자가 섞여있는 세로줄로 된 성경과 외할아버지께서 필사하신 성경, 그리고 중국인 목사님으로 부터 받은 한국어 성경이다.

1994년 김일성이 죽던 해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고, 이 과정에 은진의 집에서 드리던 예배도 발각되었다. 이날 은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 후에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등교했다.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열면 보통 아버지께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보위부에서 나와 아버지를 붙잡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책도 발각되고 빼앗겼습니다.”

이후 은진의 남은 가족들은 어머니부터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은진의 할머니는 감기몸살처럼 앓아 누우셨다. 할머니는 남아있는 성경책을 비닐에 싸서 앞마당 돼지 굴 밑에 묻으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에게 성경책을 다시 꺼내오라고 하셨습니다. 보위부에서 다시 와서 집안을 뒤질 때 발견될 수 있으니 태워서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되새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찢어서 아궁이에 넣을 때 저희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잡혀 가고 곧 이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은진의 남은 가족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곧 다른 지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우

리 집 근처에 와서 아직 있는지 창문을 통해 엿보기도 했고, 아침이면 굴뚝에 연기가 나는지 보곤 했습니다. 연기가 안 난다는 것은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밤중에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면 그날이 오늘인가 싶어서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산골로 추방되었습니다.”

은진의 가족은 추방지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추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았던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땀 것과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곳을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방지의 삶은 쉽지 않았다. 마을에는 몇 십 채의 집밖에 없었고 곳곳에 감시가 있었다. 집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아무도 없는 들

이나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고, 많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언니는 외웠던 성경 구절을 적어서 우리들만 아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마다 꺼내서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은진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찾아와 우리 가족을 알고 있는 중국 목사가 자신을 보냈으니 통화라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과 함께 중국 전파가 들어오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중국 목사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너희 가족을 찾기 위해 사람을 들여보냈었다. 중국으로 나오라.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은진의 어머니는 중국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은진을 중국으로 떠나보냈다.

“중국 목사님께서 저를 중국까지 안내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국경 앞에서 우리는 뇌물을 받은 군인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





〈국경을 순찰하는 북한 경비대원〉

널 때까지 얼마 간 기다렸다가 강을 건넜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넘어왔지만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은진은 몇 달 동안 중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그녀의 남은 가족들 역시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으로 왔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몇 년 후에 남은 가족들이 두만강을 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중국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몇 달 후에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진은 대학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는 탈북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이다. 이들은 언젠가 다시 북한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나중에 북한문이 열리면 제가 태어나 자라고 예배하던 옛 집을 다시 찾아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싶습니다.”

은진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종종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당한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은진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이다.

“할머니께서는 자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 + 與, '대북전단 금지법' 단독 처리...野 반발, 美서 파장



〈삽화: 연합뉴스 TV〉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2월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월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의회뿐 아니라 미 당국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 우려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2월 8~11일 방한해 대북전단 활동을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2일 등〉

## + 유엔총회,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의 ▲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 정치범 강제수용소 ▲ 조직적 납치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12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

로 참여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

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17일>

## + 미, 북한 1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19년째 포함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 사회가 번창하는 기반"이라며 미국이 종교의 자유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날 명단을 보면 북한을 포함해 중국, 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었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우려국은 종교자유에 관해 제도적이고 계속되는 지독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지정된다. 이 명단에 오르면 해당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정부 지원 제외를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코모로, 쿠바, 나카라과, 러시아의 경우 종교자유에 심각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시대상 국가로 재지정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임무는 절대 완료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전세계에서 종교에 기인한 학대와 박해를 끝내고 모든 이들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8일>

+ ‘코로나 막느라’…10월 북중무역 99% 급감 “역대 최저”

지난 10월 북중무역이 작년 같은 달보다 99.4%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실상 중국과 무역을 단절했다는 분석이다.

12월 10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펴낸 '10월 북중무역 통계 분석'에 따르면 북중무역은 작년 10월보다 99.4% 줄어든 166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액이다. 9월(2천80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약 92%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14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1.5% 줄었고, 대중 수입은 99.9% 감소한 30만 달러에 불과했다. 올해 1~10월 누계 북중무역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7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를 지속하면서 사실

상 북중간 무역을 단절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을 보면 시계, 가발, 신발 등 기존 임가공 품목 수출은 중단됐고,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북중 공동수력 발전 에너지와 소량의 흑연 수출만 있었다.

중국으로부터도 식자재, 의료용품 수입은 중단되고 소량의 의류 원부자재와 전자재 수입 기록만 확인됐다.

무역협회는 북한이 11월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봉쇄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추세는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북중무역은 작년 대비 8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10일> 🐟

:: 2020년 월별 북중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월(누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중 수출	10.7	0.6	2.2	4.7	9.1	8.0	6.6	1.9	1.4
증감률	△76.4	△96.2	△90.1	△70.3	△31.6	△87.9	△58.9	△87.2	△91.5
대중 수입	197.4	18.0	21.8	58.6	87.7	65.9	19.3	18.9	0.3
증감률	△27.3	△90.9	△90.0	△77.3	△58.8	△68.3	△91.2	△91.7	△99.9
합 계	208.1	18.6	24.0	63.3	96.8	73.8	25.8	20.8	1.7
증감률	△34.3	△91.3	△90.0	△76.9	△57.1	△66.8	△89.0	△91.4	△99.4

\* 주 : 2020.2월 누계 중국해관총서는 2020.1월 무역통계를 생략하고 2월누계와 3~10월 통계를 발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국 해관총서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  
저자: 뢰디거 프랑크 (Rüdiger Frank)  
출판사: 한겨레출판  
발행일: 2020년 09월 28일  
가격: 20,000원

북한은 여러모로 독특한 국가이다. 90년대 중후반 경제 붕괴 당시부터 북한 체제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 북한의 붕괴를 예측한 전문가들이 무턱대고 그런 언급을 내뱉은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일반적 사례를 미루어 보면 당연한 결과로 예상되는 양상이 북한을 둘러싸고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일반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후로도 수십 년간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오류는 아무래도 북한이 기존의

어떤 체제와도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가의 체제나 경제 시스템, 이념과 사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과거의 일반적인 것과 유사하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독재 국가이고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나라이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뢰디거 프랑크 (Rüdiger Frank) 교수가 쓴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의 뒷 표지에는 이런



의문을 반영하듯 “북한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도 그 나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도발적인 문장을 내세운다. 저자는 동독 출신 북한 전문가로서 어린시절 소련에서 4년간 거주하기도 하고 학술교류로 91년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그 후로도 약 30년간 남북한을 방문하며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관련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왔다.

도발적인 문구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끌려 책을 펼쳐보았다. 기본적으로 서구권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간략한 북한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북한의 이념과 지도자, 정치, 경제 등 북한의 중추에 대해 본인의 시각으로 글을 풀어내고 있다. 또한 책의 후반부에는 (책이 처음 쓰여질 당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예측과 아리랑 축전을 통해 보는 북한 당국이 말하는 북한,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하계 이 책은 표지에는 “북한”이라고 쓰지만 책 본문에는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독일어로는 동일한 Nord Korea이지만 역자가 내부 관점에서 북한을 본다는 맥락으로 번역에 차이를 두었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가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동독 출신 연구가라는 점에 있다. 저자가 사회주의 및 독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덕분인지 북한의 체제와 사상, 역사와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가들의 접근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무언가가 있다. 사회주의에 기본 뿌리를 두는 북한의 체제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북한의 독특함에 대해, 또 독재적 체제이지만 보통의 독재와는 다른 북한만의 특징에 대해 조목 조목 잘 짚어준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과거 행보와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이면의 의도나 영향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과 설명을 곁들이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보통의 정치, 경제 전문가들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과 해석이 눈에 띈다.


통일에 관하여 일반적인 서구권 연구자들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아무래도 통일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주로 독일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동독 출신으로 통일을 경험한 연구자로서 이러한 주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 통일과 관련된 시나리오나 비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와 부정적인 포인트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여러 난관들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다만 저자가 한반도 통일이 독일과는 다르며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통일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 시야를 가지길 바란다는 느낌도 받았다.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책 전반에 여러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북한의 이념이었다. “심각한 기근, 건국자의 죽음, 다른 사회주의 체제들의 붕괴 등을 겪고도 어째서 북한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념이라고 답할 것이다. (...) 언젠가 이 정권이 서서히 또는 급격히 사라진다면, 이념의 변화 또는 이념에 대한 신뢰 상실의 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저자의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저자는 주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그 사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도그마에서 벗어나면서 얻어지는 양면성과 유연성이라고 보았다. 즉 “주체사상이란 그냥 외국과의 접촉에서 자신의 독립을 위협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행동의 선택지

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다.”라고 심플하게 묘사한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많은 북조선 사람들 눈에 분리할 수 없어 보이는 사회주의, 지도자, 민족주의의 결합일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북한 이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중산층의 등장과 이로 인한 폭발적인 소비의 증가, 그리고 그 영향 등에 대한 저자의 서술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말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였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싶다, 또는 북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을 북한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자료로 소개해본다. 

1.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정책의 변화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운영 등 종교에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핍박의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잡히거나 순교하는 성도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제대로 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국제 사회와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종교의 자유 증진과 인권 개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믿음을 지켜가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 성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해로 인해 순교한 신자의 후손, 또는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내지 성도들을 영육간에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3.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은 추위 뿐 아니라 코로나19 2차 확산과 이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의 주민들에게 더욱 매서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간 이어져 온 경제 제제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그리고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 재해 등 다양한 난관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더욱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외 교역이 제한되는 가운데 부족한 물자로 인한 미비한 난방 및 주거, 의복 환경은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며 각종 미신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용한 양식이 공급되고 영과 육이 모두 생명을 얻도록 도움의 길이 열리고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북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현장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4.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웠던 2020년을 회상해보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올 한 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경우든 한반도의 평화와 진전을 이루고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을 포함한 복음화의 역사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선교현장과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선교 환경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능한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잠시 완화되는 듯 했던 방역 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힘써온 동포 조선족 교회들이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6.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작 환경의 악화 가운데서도 방송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북녘으로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나아진 제작 환경에서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방송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잘 송출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듣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1월 1일

월드와치리스트  
2020

## World Watch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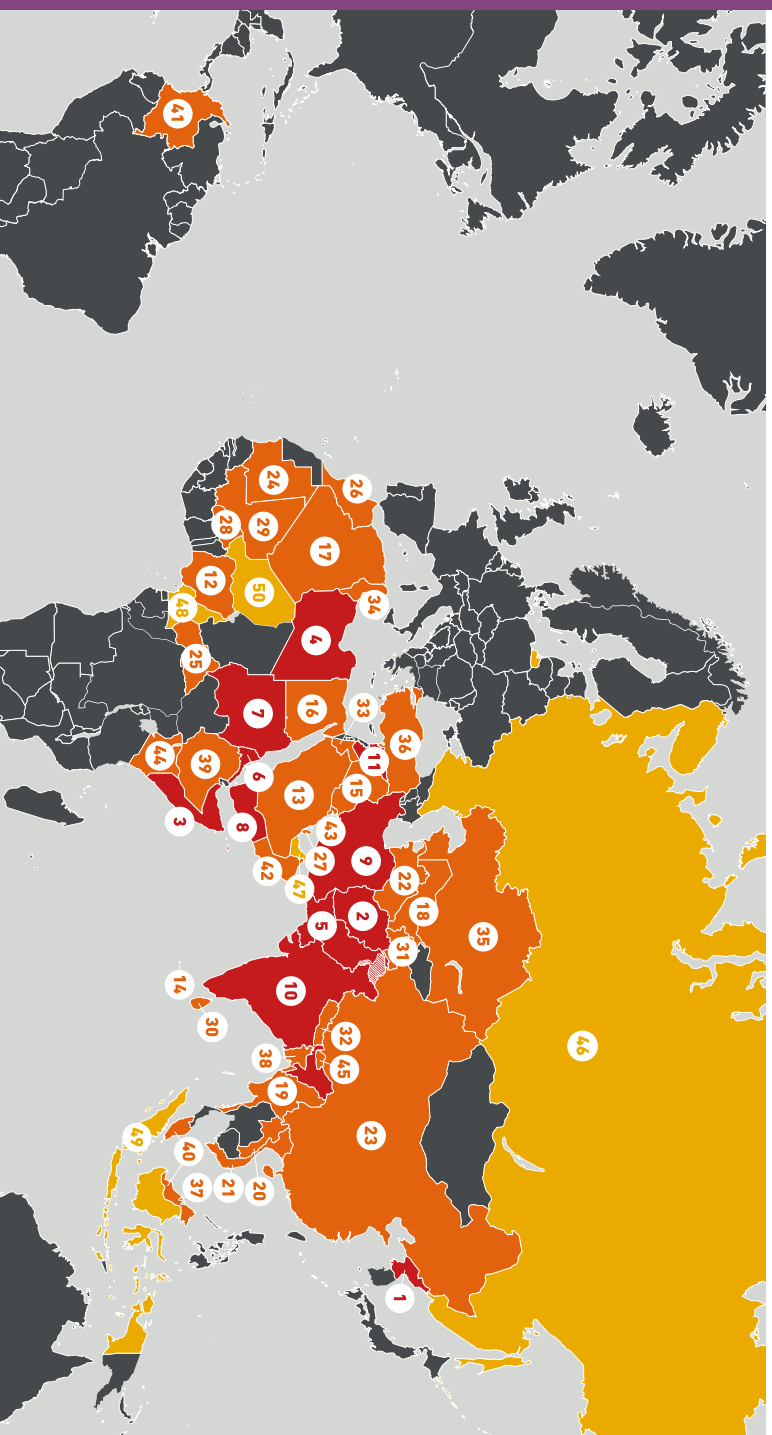
크리스챤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 |    |           |    |             |
|----|-----------|----|-------------|
| 1  | 북한        | 26 | 모로코         |
| 2  | 아프가니스탄    | 27 | 쿠웨이트        |
| 3  | 소말리아      | 28 | 부룬디         |
| 4  | 라비아       | 29 | 말리          |
| 5  | 파키스탄      | 30 | 스리랑카        |
| 6  | 에티오피아     | 31 | 타지키스탄       |
| 7  | 수단        | 32 | 네팔          |
| 8  | 에리트레아     | 33 | 오만          |
| 9  | 이라크       | 34 | 튀니지         |
| 10 | 인도        | 35 | 카자흐스탄       |
| 11 | 시리아       | 36 | 타지키         |
| 12 | 나이지리아     | 37 | 브루나이        |
| 13 | 사우디아라비아   | 38 | 방글라데시       |
| 14 | 몰디브       | 39 | 아제르바이잔      |
| 15 | 이라크       | 40 | 말레이시아       |
| 16 | 아랍        | 41 | 몰로비아        |
| 17 | 알제리       | 42 | 오만          |
| 18 | 우즈베키스탄    | 43 | 쿠웨이트        |
| 19 | 미얀마       | 44 | 케냐          |
| 20 | 라오스       | 45 | 부탄          |
| 21 | 베트남       | 46 | 라이베리아       |
| 22 | 투르크메니스탄   | 47 | 아랍에미리트(UAE) |
| 23 | 중국        | 48 | 카메룬         |
| 24 | 모리타니아     | 49 | 니제르         |
| 25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50 | 니제르         |

복합수준

- 극단적인 반핵 ● 매우 높은 수준의 반핵 ● 높은 수준의 반핵
- 옌문도어 엘도어치만드는 크리스스먼의 반핵가정 신탁은 왜 국가들의 승인을 전한, 보고되어, 종결되어, 사회화되어 자위되어나 옌문도어 반핵가정 10개 국가의 일정으로 북극은 실제의 리더를 만들어 만들어 진 것이나? 7 국가의 반핵가정 옌문도어 이용은 핵가정수 크리스스먼의 의해 불완전하다. 이것은 북극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스먼이 개인과 정부,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믿고 생활 할 것인가와 그것을 행하는지를 행하는가

오른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검사를 받습니다. WWJ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크리스천회는 교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메시는 스텔링가바티칼로가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거실폭탄테러범이 시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티는 말합니다.

“시간이 발전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지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찬례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시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황제를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